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 형제적 일치에 이르게 한다. (생활규칙 24)



2024 년 9 월 19 일 ,오늘 17 시 30 분 이탈리아, 보르고 트렌토 (VR)병원에서 우리의 자매인 **비딸리아 , 그라시아 마리아 살라리스 수녀**가 88 세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수녀님은 64 년간 수도생활을 하셨습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부르신 우리 자매 그레이스의 삶과 사명이 이것을 증거했기에, 시편 저자와 함께 우리는 주님이 선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영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탈리아는 1935 년 9월 29일 시막시스(OR)에서 태어나 1935년 10월 20일성 시마쿠스 교황의 본당 시막시스에서 세례를 받았다. 1957년 8월 1일 알바노 라찌알레 모원 공동체로입회했고, 1959년 9월 2일 수련에 들어갔다. 1960년 9월 3일에 그라시아 마리아 수녀라는이름으로 첫 서원을 하고 1965년 9월 3일에 종신 서원을 했다.

서원 후 여러 지역으로 파견되어 주로 교육 분야에서 사도직을 수행했다: 1960 년 로사노스타치오네(CS), 1965 년 포자-성 바오로, 1969 년 토디(PG), 1970 년 펠트레의 파라(BL), 1979 년 첸지오(SV), 1980 년 페스키에르 보로메오의 베톨라 (MI), 1986 년 토르 산로렌조(RM)에서 안식년을 보냈다. 1987 년 베톨라 디 페스키에라 보로메오(MI), 1993 년 베로나 -관구본부, 1994 년 코레졸라의 시베 (PD), 1998 년 안식년, 1999 년 프라시노(MN), 2003 년 네그랄, 2009 년 보르가레토(TO), 2017 년 네그랄로 돌아와 오늘에 이르렀다.

그레이스 수녀는 소박하고 내성적이며 기도에 충실하고 사목 사도직에 관대한 수녀로 묘사됩니다. 수녀는 특히 주로 사도직을 수행하는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일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녀는 신중함과 신앙의 위안을 주고자 하는 열망으로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수녀들은 그레이스 수녀가 공동체에서 어린이, 젊은이, 성인들을 항상 따뜻하고 밝게 대해 주었다고 증언합니다. 수녀는 성모님을 매우 사랑했고 루르드 묵주기도를 매우 충실히 바쳤습니다. 건강으로 인한 힘의 상실과 한계는 인내와 침묵, 기도로 이루어진 선한 목자께 바치는 제물이었습니다.

빠스또렐라로서 그레이스 수녀의 삶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그녀를 아버지의 자비에 맡기고 인류 역사의 이 섬세한 시기에 평화의 선물을 위해 수녀님의 중재기도를 청합니다.

아민타 사르미엔토 푸엔테스 수녀

총장

2024 년 9 월 19 일,로마 성 젠나로, 주교 순교자